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05호 [투게 제 25714호] 주제 106 (2017)년 7월 24일 (월요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 위훈의 창조자가 되자

### 강의 전투적 호소따라 온 나라가 떨쳐나 가물과의 투쟁에서 군민대단결의 위력 힘있게 과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성 준비를 위한 지역자강의 만리마선구자대회에서 군민대단결, 군민협동투쟁의 위력이 날을 따라 더욱 높이 발휘되고있다.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가물과의 투쟁을 벌릴데 대한 당의 호소를 심장마다 새겨안고 인민군정병들,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높이 지연의 격전에서 혁명적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인민군인들과 인민들의 드높은 열의속에 전국적으로 수십만대의 불진개와 실비들이 동원되고 짧은 기간에 4만여개의 우물, 굴포, 흙방울 비롯한 지하수시설들이 새로 조성되거나 보수되어 완성에 이용되였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투쟁으로 협동농장마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애국의 구슬방이 밀려들어가

어 최악의 왕가물속에서도 사회주의의 진야를 푸르려 실례이게 한 이 격동적인 현실은 당의 명령지시라면 무조건 경사관철하는것을 제철화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완강한 공격기질, 일심단결의 대동무의 일대 시위로 된다. 강에 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짓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막는 분별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의독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지난 4월말부터 지속된 심한 가물과 고온현상으로 애써 심어 가온 농작물생육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 일복한 현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 농업부분에서 자연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앞무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당은 모든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여 혹독한 가물피해를 철저히 막고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킬것을 결심하고 진당, 진군, 진인이 자연과의 격전, 가물과의 투쟁을 힘있게 벌릴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강에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받들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선수로 전진하여 48만㎡의 물원현을 확보하였다. 연안군 송호협동농장, 와룡협동농장, 용진군 분령협동농장 등 황해북도의 협동농장들과 양수장들의 개진보수공사를 계속하여 이어 물주기를 힘있게 진행하였다. 송림시, 황주군 등 황해북도의 농촌들에 달려나간 인민군인들도 물원현복구사업을 선행

시키고 각종 불진개제들과 원동기, 양수기, 강우기들의 만가공을 보장하여 배인 수천㎡의 물을 퍼올려 푸르마다에 생명수가 흘러넘게 하였다. 평안남도의 협동농장에 달려나간 인민군인들은 전투에 전입하여 단 2일동안에 500여개의 굴포와 1400여개의 우물을 파고 수십리 물길건설과 수백리 구간의 물원현복구공사를 해체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군민협동투쟁의 선두에 선 인민군인들은 헌신적투쟁에 의해 남포시에서도 수백㎡의 개천-래수호결이 정려되어

많은 면적의 논밭에 생명수가 보장되었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열에서 내달리는 인민군대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파워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만사를 제치고 가물피해막이 전투에 총력을 집중하여 남포시 실적을 올렸다. 황해남도의 농촌들에서는 이미 건설한 군 2만개의 지하수시설들이 보수되고 우물 2800여개, 굴포 480여개, 흙방울 520여개가 더 늘어났으며 1800여개의 보막이도 설치되어 부족되는 불원인이 확보되었다. 도적으로 매일 평균 수십만명의 로력 수천대의 운수기재, 1200여대의 차량양수기들을 총동원하여 물주기와 일터비료주기, 논바닥꾸러기기를 진행한 결과 지난 6월 28일까지 1만 2000여정보에 대한 가물을 완전히 해소시켰다. 황해북도에서는 영양수를 리용한 호프적인 가물피해막이 방법을 창안도입한 황주군의 경험을 모든 협동농장들에 일반화하는 한편 풍광과 소비에 대한 감독관제를 강화하여 성과를 확대하였다.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6월 29일 하루동안에만도 도적으로 8800여정보의 논밭에 물주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앞구고지를 거머쥐어 점령한 열의안고 평안남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가물과의 투쟁을 파격히 전개하였다. 평성, 개천시, 평원, 대동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물길보수공을 정상적으로 하여 물방비를 없애고 주제농법의 요구대로 로전별 및 작물층면적에 맞는 관수방법을 적용하면서 농작물들이 잘 자랄수 있게 하였다. 평안북도 시, 군들에 원동기가 달린 양수기들이 긴급보장되고 양수장들을 새로 건설하는데 필요한 많은 자재들이 자체로 해결되었으며 물길가시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풍차와 양수기, 배남시분무기 등을 가지고 농촌들에 달려나간 국가계획위원회, 내외경제성, 기계공업성, 극동환경보성, 중앙은행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꾼들과 각지 공장, 기업소들의 지원자들은 경제강국건설의 주체적담당인 농업전선을 함께 책임졌다든 주인공들 자각을 안고 매일 달려진 물주기계획을 엄밀히 수행하였다.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에 새기고 사회주의수호전의 진초신인 농업전선에서 새삼 절도 없는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한 기세로 일심단결과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다그치고 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 열흘동안에 수백만t의 물을 베어들었다

### 각지 농촌들에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아로 새겨진 만리마선구자대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성공과로 맞이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물배기전투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총합된 자력에 의하면 지난 12일 전국의 농업근로자들에 게 사회주의경쟁을 요소한 심원한 농업근로자들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강에 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고 산악간이 펼쳐나선 각지 농업근로자들이 물배기전투에서 애국의 구슬방울 아낌없이 비추었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기제들의 만가공보장에 필요한 부족공급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었다. 결과 전투가 시작될 첫날부터 모든 력량이 총집중, 총동원된 속에 물배기성공과 계속 확신되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농사를 잘 짓어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막는 분별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의독을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 거세차게 라번지는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

### 석탄공업성 아래 각지 탄광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대외 결핵관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또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떠오르는 막강마다에 전투파지를 정하고 전투대중을 격구 고무추동하면서 지기는 문제를 제때에 풀어주기 위해 뛰고 또 뛰고있다. 올해전투목표를 정하는에서 장마철생 산준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중산공업부문 일꾼들과 탄광들의 중산성공에 달려나가고 있다. 석탄공업성 당조직에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올해에 높이 세운 석탄생산목표를 정렬하는것에 자각을 심어준 일꾼들에게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일관하게 벌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철학모부에서는 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세울데 맞게 성일군들이 담당단위별로 내려가 전투조직과 지휘를 펴고물면서 일꾼들우로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주별총화회를 통하여 모든 일꾼들이 성과와 결합에서 결합과 교훈을 찾고 더욱 분발하도록 하고있다. 순철, 덕천, 북상, 개천, 독장지구의 탄광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대외 결핵관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대외 결핵관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대외 결핵관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함으로써 인민의 리상과 꿈을 이 땅우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야 합니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 우리의 원료와 자재로 새 제품 개발

###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

### 라남탄 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데고조전진속도를 비상의 높여가고있는 식료일용공업성아래 공장들에서 열의안고 생산의 공평화를 실현하였다. 평양시안의 농촌들에서 면밀한 준비일에 첫시작을 잘 펴기세로 헌신적노력을 기울였다. **«알곡생산을 높여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는데서 물배기가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명심하고 물배기전투의 열기모임으로 열하고 한결같이 펼쳐나선 각지 농촌들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열흘동안에 3백여만t의 물을 베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안북도안의 농촌들에서도 매일 많은 물을 베어들이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오늘 농업부문에 내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을 농사를 잘 짓어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각지 농촌당조직들과 농민조직들이 위대한 수평농업의 유년과 땅 제 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인 과업을 대충속에 깊이 해실전전하며 당면한 물배기전투에 선진선수대원을 뽑아내 총동원하여 전투장마다에 투쟁 열, 애국열이 자라나게 하였다. 동방물결의 격각구, 세계적인 로드드레즈주기로 추겨쳐오른 우리에게 딸린 있으면서 불태워 입이 없다는 드높은 자각을 안



# 현시기 전력문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김정은

##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확립과 그 운영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신속있게 운영하며 국가생산에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합니다.》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로를 열어나가려면 전력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전력공급을 개선하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무장을 갖춰야 합니다. 열마진 우리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확립과 그 운영본체를 놓고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건설되는 데서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가 갖는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전력공업성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확립할 때 전방적인경제부흥에서 더 더 생산성장을 이룩할수 있다는것을 실지처럼 보여주고 있었으며 그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신속하게 운영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기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차장 김철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한미디로 통합생산관리체계의 통합부하관리체계의 총체이다.

여기서 말하는 통합생산관리체계의 전국의 모든 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발전소들이 가장 합리적인 출력분배를 실현하여 같은 물과 석탄을 가지고 전력을 최대 생산할수 있게 하는 체이다. 한편 통합부하관리체계의 전국의 모든 소비단위들의 전력소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생산된 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체이다.

기자: 전력공업성에서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하여 어떤 대책들을 취하고있는가.

**1부상 김영철:** 함경남도충매전부와 평안남도충매전부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충매전단위들에서 지역, 대상별부하관리체제, 교차생산조절체제, 전력계통실시간분석체제와 같은

부분별체제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수시작업가동전력계, 자료집중기 등을 그릇에 갖추기 위한 사업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그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나라의 모든 발전소들에 대한 통합생산관리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여 수력발전소들과 화력발전소들이 경제적으로, 수력발전소들이 용량과 막대한 전력, 화력발전소들이 발전기대출력이 합리적인 부하분배를 실현함으로써 물과 연료의 단위소비당 출력을 최대한 높이고자 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있다.

특히 금강지류와 교차생산조절 및 전력소비형태에 대한 장악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현대화하여 전력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주력수, 전압 등을 정적으로 보장하면서 전력계통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며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차장 김철원:** 자료통신체제를 더욱 완벽히 확립한 산간지역에 이르러까지 전국의 모든 발전소들에 수시작업가동전력계, 자료집중기 등 전력관리기술장치를 배정없이 설치하기 위한 사업에 마중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관계 밑에 전력공업성신하 연구소들에 전력생산과 공급상태를 실시간으로 세밀하게 종합, 분석할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도 일정계획에 따라 성과적으로 진행되고있다.

기자: 이미 세워진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신속하게 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은 무엇인가.

**부처장 차일수:** 우리 전력공업성에서는 전력공급에서 정공주의를 없애고 경제건설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무분, 단위들에 전기공급을 우선적으로 보내주는 규율을 철저히 확립하고있다.

인민들이 전기력을 볼수 있도록 금강조각과 지휘를 짜고들며 특히 유치전과 락스, 병행한 비롯한 교육보건기관들과 사회보장시설들에 대한 전력보장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있다.

기자: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한 사업에 어떤 과제를 맡고있는가.

**1부상 김영철:** 물론이다. 국가적으로는 더 말할것도 없고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체의 전력관리체계를 세워 비정전 전력으로 생산과 경영활동을 보다 실리있게 해나가기 한다.

지난 시기처럼 전력공업성을 중앙에서 도맡아하는에만 그치지 말고 각 도들에서도 국가통합전력관리체제안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전력공급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처장 차일수:** 위대한 수령님들의 훈육과 당정책의 요구대로 교차생산조절을 더욱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교차생산을 잘 조직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긴장한 전력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 교차생산조절을 잘 조직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긴장한 전력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 교차생산조절을 잘 조직하면 추가적인 투자 없이도 긴장한 전력문제를 적지 않게 해결할수 있다.

모든 단위들에서 교차생산규율을 엄격히 지키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1부상 김영철:** 만리마선구자체를 향한 진전출력발전의 불길속에 사회주의강국건설속도가 날마다 빨라지고있는 오늘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우리 전력공업성인의 전체 일군들과 정부원들은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경제강국건설의 돌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있게 새기고 국가통합전력관리체제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신속하게 운영함으로써 만리마선구자체건설을 힘있게 추동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정순성**

##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는것은 당 제7차대회가 결정한 설계도 따라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설것이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것과 함께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당면한 전력수요보장은 물론 인민경제의 전방적발전도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다. 앞으로 경제강국건설이 전철필수품, 사회가 발전하고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문명해질수록 전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높아져간다.

우리의 경제가 전기절약형경제로 확고히 전환될 때 나라의 자립적공업이 대대적으로 발전되고 조진공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게 되며 이 땅에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이상이 더욱 찬란한 현실로 꽃피게 될것이다.

전기절약형경제로의 전환에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의 새로운 질적비약을 위한 토끼의 활로가 있다.

혁명기건설에 참가한 군인들과 건설자들은 태양과 지평을 비추는 자연에너지기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을 광범히 받아들여 혁명기건설을 에너지를 절약하는 본보기로 일떠세우도록 우리가 일떠세우는 사회주의

문명강국의 높이가 과연 어떤 경지에 이르렀는가를 자랑한 현실로 펼쳐보여졌다.

남북통일과 화해협력사업에서도 제자친화가 실현된 에너지절약형의 증기생산공장을 확립하고 전력마세강원합기연구소에서 에너지절약형 생산방법을 적극 도입하고있다.

국산화의 보급이 늘어났고있는 이러한 성과들은 우리의 힘과 기술로 그것도 최단기간에 얼마든지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할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드넓은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

금속공업과 화학공업부문을 비롯하여 전력용량이 쓰는 부문, 단위들에서 전력소비를 극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개발을 다그쳐야 한다. 생산을 전문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전력소비가 큰 생산공정들을 대담하게 정리, 생산하며 파대용량설비들을 도입하는것으로 경제하여야 한다.

각종 기계설비들을 전기절약형으로 개발생산하며 선진적인 전력측정장치를 도입하여 전력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전국일제부에서 평안도전기공학기술을 받아들여 만든 증기발전소를 전기절약형, 에너지절약형으로 설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경제를 전기절약형경제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투쟁에 창조적재능과 열정을 다 바치면서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 동배전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평양시 송배전부에서 전력공급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전력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다그쳐 발전소들에서 생산된 전기의 수급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생산된 전기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입니다.》

이곳 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수도의 전기문제 해결을 위해 바쳐온 헌신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지난 3월 평양시 송배전부 전력공급을 위한 전수이실공사를 4일만에 질속한것을 비롯하여 청원들을 세우고 송전선로를 늘이는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끝내

있으며 이 지구에 여러대의 변전소를 더 증설하였다. 또한 불공사를 제때에 질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평양시전망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광명지구의 공장, 기업소들과 새로 개건되는 평양외국어대학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다그쳐 마중단계에 이르렀다.

송배전부에서는 이와 함께 전력의 도통순실을 줄이며 전력비율에 대한 주기적검토사업과 송전선로들에 대한 순회점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불공 개소들을 제때에 조치함으로써 전력공급사업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지난 기간 중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들의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낸 경험에 기초하여 올해에 들어와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광명지구를 비롯한 다른 구역들의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힘써적으로 전개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설비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일군들이 구역별에 담담하고 나가 배당 송배전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시안의 전력공급체계에 남아있던 불광한 설비들을

교체함으로써 사고요소를 훨씬 줄이게 하였다. 또한중구역과 동대천구역에 비롯한 각 구역의 송배전소에서도 자기 구역의 전력설비들에 대한 주기적검토사업과 담담선로순회 점검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보장하고 있다. 여기에 설치되어있는 전력설비들에 대한 비약이적들을 미미미미 세우는것과 함께 10여종의 폐기물들을 성인이 높은 폐기물들도 교체하여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전력공급과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현지에 나가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면서 반납이 따로 없는 전후 물의 제때에 조치해나가고 있다.

송배전부에서는 이미 구축된 통합전력관리체계를 더욱 완성하여 금강조각과 지휘를 보다 개선하기 위한 사업과 각 구역송배전소, 변전소들에 생산한 송배전을 사회주의문명강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시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있게 앞장서고있다.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만리마선구자체를 향한 진전출력발전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최영조**

복합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갖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전력생산량을 확고히 담보해나가고있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빛과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장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전력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혁신방향을 생산원가를 줄이면서 발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추진을 한데단 끌어올리는 것으로 정하고 기술발전과 운영기술원수의 기술자들과 3대 혁명조직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업기술원수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석탄발전기의 주축수기를 개조하여 미분단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정확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분석기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축수기를 새롭게 개조한

결과 미분단생산성을 종전보다 8%이상 더 높였다.

기사 향상조동부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수부의 날개를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유리의 새로운 주조방법을 창안하였다. 국산화의 보급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급수부조동부를 새로운 초형정밀주조방법으로 제작함으로써 원가를 1/5로 줄여냈다.

보다이론관제 및 부식방지제도 새롭게 창안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정상가동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보다이론관제에 불타 나쁜물들이 쌓이는것을 수일복종으로 막을수 없었지만, 분석기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축수기를 새롭게 개조한

그 운영을 신속하게 짜고들어 생산성향상의 전방적기술인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이직장마다 단위의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과제들을 명백히 주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강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과 각 직장에서 상반기 기간에만도 총 60여건의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현재 연합기업소에서는 만리마선구자체건설의 리력으로 전국의 과학기술과제들을 더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김명준**  
**본사기자 김충훈**

## 과학기술로 전력생산을 확고히 담보

복합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서 갖는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전력생산량을 확고히 담보해나가고있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빛과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장하고 기술개선을 다그쳐 전력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연합기업소에서는 기술혁신방향을 생산원가를 줄이면서 발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고 설비, 자재의 국산화추진을 한데단 끌어올리는 것으로 정하고 기술발전과 운영기술원수의 기술자들과 3대 혁명조직원들이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공업기술원수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석탄발전기의 주축수기를 개조하여 미분단의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생산정확도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분석기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축수기를 새롭게 개조한

결과 미분단생산성을 종전보다 8%이상 더 높였다.

기사 향상조동부를 비롯한 기술자들은 전력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급수부의 날개를 자체로 제작할수 있는 유리의 새로운 주조방법을 창안하였다. 국산화의 보급이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급수부조동부를 새로운 초형정밀주조방법으로 제작함으로써 원가를 1/5로 줄여냈다.

보다이론관제 및 부식방지제도 새롭게 창안함으로써 발전설비의 정상가동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보다이론관제에 불타 나쁜물들이 쌓이는것을 수일복종으로 막을수 없었지만, 분석기의 회전수를 높이기 위하여 주축수기를 새롭게 개조한

그 운영을 신속하게 짜고들어 생산성향상의 전방적기술인력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있다. 한편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이직장마다 단위의 실정에 맞는 기술혁신과제들을 명백히 주고 그를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통하여 자강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결과 각 직장에서 상반기 기간에만도 총 60여건의 기술혁신과제들을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현재 연합기업소에서는 만리마선구자체건설의 리력으로 전국의 과학기술과제들을 더 수행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이고있다.

**김명준**  
**본사기자 김충훈**

##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 진행

【평양 7월 23일말 조선중앙통신】조선민족보험총회사 창립 70돌 기념보고회가 23일에 진행되었다.

보고회에는 관계부, 총회사 일군들, 종업원들, 각 도, 시, 군 보험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총사장 홍영봉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친단위인이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결정한 설계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힘써나갈것을 다짐하고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일찍이 주체적인 보험건설사상과 리론을 제시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보험기관을 창립해 주시였으며 보험사업이 필수불가결한 인민의 복리후생에 참담하게 이바지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명도자 김정일 동지,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가 지난 70년간 사회주의경제건설과 근로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 기여하는 위대한 경제적 수단으로 강화발전시켜 사회주의보험의 인민적성격을 남겼음이 발상시켜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총회사가 전국에 많은 보험지사를 두고 인민경제의 모든 부분의 재산과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을 널리 조직하였을뿐 아니라 각종 가물피해를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들과 사고들에 의한 손해를 제때에 감당하고 신속정확히 보상해주어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상화를 보장하였으며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할수있게끔 대하여 강조하였다.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공과 밀접한 력을 발휘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보험일군들이 보험의 원리와 인민적성격의 요구에 맞게 인민경제 모든 부분의 재산보호와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인제보험을 빠짐없이, 더 다양하게 조직함으로써 보험의 예방적기능과 보상적기능을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들과 개인들이 재산관리를 잘하고 피해를 미리파도록 적극 도와주며 예방적 손해를 제때에 감당하고 보상해주어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미래와 그 추후세력들이 인민들의 적정되어있는 보험부문에까지 무당한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의 보험사업이 인민들의 복리후생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지 못하도록 같은 비열한 책동을 다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적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보험사업을 더욱 확고히 발전시켜나갈 결의들을 강력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보험일군들이 인민의 참된 봉사자로서의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만리마선구자체를 불꽃은 오늘을 위한 진전출력발전에서 앞장서서 본분을 다해나갈것을 다짐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 자강력은 실천투쟁속에서 키워야 한다

청진중앙동원원사료 보장수산업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제하는 최고명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은 당과 혁명앞에 지난 숭고한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대오의 앞방에서 대중을 이끌어 나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만리마선구자체건설의 불길에 거세게 타오르고있는 청진중앙동원원사료보장수산업소의 현실은 이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다.

자강력은 결코 쟁로 강해지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포로됨이 없이 무던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 이것은 자강력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올해 초 사업소일군들이 내세운 단계별투쟁목표를 높이고, 8월의 배수피와 2중3중의 어구준비, 상반기안에 연간인민경제계획 완수, 1000만여원 선 4척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하였다.

지난해에 착공한 연혁계개설, 통합생산시위실, 정양소, 종업원식당, 과학기술보급실, 도서관, 목욕탕, 남대문실, 비석제배탕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3층짜리 건물공사 완공, 축산물 대대적으로 내입을 단행하는것을 생산하였다.

하나하나 무리하고 내세워 실로 이끌기 위하여 내세웠을 때 일부 종업원들과 주변단위들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일군들이 부단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볼수 없다. 일군들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강력은 결코 쟁로 강해지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포로됨이 없이 무던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 이것은 자강력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올해 초 사업소일군들이 내세운 단계별투쟁목표를 높이고, 8월의 배수피와 2중3중의 어구준비, 상반기안에 연간인민경제계획 완수, 1000만여원 선 4척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하였다.

지난해에 착공한 연혁계개설, 통합생산시위실, 정양소, 종업원식당, 과학기술보급실, 도서관, 목욕탕, 남대문실, 비석제배탕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3층짜리 건물공사 완공, 축산물 대대적으로 내입을 단행하는것을 생산하였다.

하나하나 무리하고 내세워 실로 이끌기 위하여 내세웠을 때 일부 종업원들과 주변단위들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일군들이 부단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볼수 없다. 일군들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강력은 결코 쟁로 강해지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포로됨이 없이 무던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 이것은 자강력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올해 초 사업소일군들이 내세운 단계별투쟁목표를 높이고, 8월의 배수피와 2중3중의 어구준비, 상반기안에 연간인민경제계획 완수, 1000만여원 선 4척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하였다.

지난해에 착공한 연혁계개설, 통합생산시위실, 정양소, 종업원식당, 과학기술보급실, 도서관, 목욕탕, 남대문실, 비석제배탕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3층짜리 건물공사 완공, 축산물 대대적으로 내입을 단행하는것을 생산하였다.

하나하나 무리하고 내세워 실로 이끌기 위하여 내세웠을 때 일부 종업원들과 주변단위들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일군들이 부단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볼수 없다. 일군들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강력은 결코 쟁로 강해지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포로됨이 없이 무던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 이것은 자강력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올해 초 사업소일군들이 내세운 단계별투쟁목표를 높이고, 8월의 배수피와 2중3중의 어구준비, 상반기안에 연간인민경제계획 완수, 1000만여원 선 4척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하였다.

지난해에 착공한 연혁계개설, 통합생산시위실, 정양소, 종업원식당, 과학기술보급실, 도서관, 목욕탕, 남대문실, 비석제배탕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3층짜리 건물공사 완공, 축산물 대대적으로 내입을 단행하는것을 생산하였다.

하나하나 무리하고 내세워 실로 이끌기 위하여 내세웠을 때 일부 종업원들과 주변단위들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일군들이 부단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볼수 없다. 일군들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실천행동에서 나타나야 한다.

자강력은 결코 쟁로 강해지지 않는다. 주어진 조건이나 환경에 포로됨이 없이 무던히 높은 목표를 내세우는것, 이것은 자강력강화의 선결조건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올해 초 사업소일군들이 내세운 단계별투쟁목표를 높이고, 8월의 배수피와 2중3중의 어구준비, 상반기안에 연간인민경제계획 완수, 1000만여원 선 4척을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하였다.

지난해에 착공한 연혁계개설, 통합생산시위실, 정양소, 종업원식당, 과학기술보급실, 도서관, 목욕탕, 남대문실, 비석제배탕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3층짜리 건물공사 완공, 축산물 대대적으로 내입을 단행하는것을 생산하였다.

하나하나 무리하고 내세워 실로 이끌기 위하여 내세웠을 때 일부 종업원들과 주변단위들의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

### (시) 그이는 전승광장에 서계신다

장장 60여년  
신군의 위대한 세립  
승리의년대와 년대들우에  
거룩히 빛나는  
강철의 평정의 환하신 그 영상

7월의 전승광장  
원수벌 빛나는 메복을 일으키고  
열방대오를 사열하시는  
김일성장군!

그이를 우리로  
이 마음속엔 보여오구나  
같이쳐오르는 승려자들의 대오  
불길속에 재가부르 흥날리던 성조기  
항부서를 바치던 거대한 미제의 불꽃이

평안이 그으시는 자정도의 화살표파라  
노도지는 인민군용사들의 총성앞에서  
아우성치며 나팔결린 양기의 무비  
진격하는 무쇠철마의 발굽에  
넘 마저림 깎기여진 《상승사단》의  
군기들

하늘 땅 바다  
역승의 그 손길 가리키는 곳마다  
단대한 배방  
평원한 지락은

### (시) 장진호반의 눈보라소리

승리의 역사가 자랑차게 빛나는  
진승기념관 통과 울음 지나  
무수한 달침을들이 예시 밀려선다  
장진호반전투반경화되어

12월의 흑한 천협의 함정속에  
남강도 승양이 푸르려 시정없이 물이넣고  
서리달침추를 퍼뜨는  
눈보라소리  
눈보라소리  
장진호반의 눈보라소리

한겨울의 눈보라가 덮음을 모르는  
어기에 오늘도 갈척있구나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과 전설들을 남았거니

계절을 모른다  
이베리카제국의 《승진신화》를  
백두의 서러달치는 장검으로 찍어던지고  
승리의 7.27을 이 땅에 안아오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평장

원자탄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미제를  
멸망의 나락에 치달리시어  
미제를 타살한 첫 전승곡으로  
이 조성을 안아올리신  
만고철세의 영웅  
그이는 영원한 승리의 기적

미제를 처이긴  
위대한 인민의 아들딸들을 축복해주시던  
그 손길아래 오늘도 흐르고있다  
불패의 핵무력 철의 대오가  
전승광장의 열파우에 넘치던  
환하신 그 미소는  
영원한 승리의 축복으로 눈부시어라

오, 강철의 평장 김일성장군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안아올  
백승의 대오를 사열하시어  
오늘도 전승광장에 높이 서계시어라

### (시) 장진호반의 눈보라소리

불벼락에 얼어맸고  
강주위에 얼어죽은  
이베리카의 무고고혼들이

팔라의 노래들을 진정리에 끌어낸  
월거의 나라들은 어찌 있느냐  
아침저녁 밀가슴에 실자물 그으며  
불러왔던 《하나님》은 어디로 뺏겼느냐  
노호한 눈보라속에 독안에 든 귀마냥  
산 눈도 죽은 눈도 동태리키이 되었구나

통째로하다  
전설의 승리봉으로 하늘을 찌르며 솟은

이 땅의 신발과 고지들은  
원수들의 비명소리 가득한 상상성,  
함정밭

그날의 눈보라소리  
오늘은 《화성》과 《북극성》의 피성에 실려  
천지를 뒤흔돈다 해평양을 뒤번진다  
백전백승의 이상들을

### (시) 오늘의 《월미도》가 여기 있다

영평도, 백령도...  
가장스런 적소굴들을  
영웅들의 조준경안에 걸여놓고  
내 지겨운 심호소는 오늘의 《월미도》  
오, 그날에 아꼈던 멀적의 불이 흐른다

추켜든 포신은  
중요의 화염안고 달아올랐다  
기습을 친다  
이 가슴을 친다  
월미도용사들의 3일간  
불사신들의 영웅신화를 전하는  
그날의 불과도 불과도소리

쏘라! 쏘아라!-  
월미도방위자들의 피어난 제침이  
홍백을 친다  
영웅들이 부르던 조국의 노래가  
설명의 포탄을 재운  
강철포신우에 메아리친다

정양으로 가는 길을 지키라!-  
월미도의 빛이 불붙는 이 가슴  
조국을 안았다  
불침의 전함으로 솟은 이 섬은

### (시) 승리 상 앞 에서

푸르른 저 하늘가에  
만홍대공화국기 높이 휘날리며  
오늘도 서있는 전승기념관의 승리상  
위대한 50년대의 명사여  
그대 보고있는가  
대륙간관도르데르가 치솟는 장대한 모습들

천년용인이 뛰어오르는듯

죽음의 불도가니로 만들어버린  
영웅의 나라 선군조선!

멀적의 폭풍을 부르며  
미제의 최후명말을 선언하며  
오늘도 불어친다 노도친다  
오, 장진호반의 눈보라  
눈보라소리

여기에 있다  
사망하는 어머니 계시는 고향집드락  
《소나무》책가방 달랑이는 동생들의 학교길  
여기서 안아본다  
새 거리에 물결치는 인민의 웃음꽃  
전야에 설레이는 금나락...

사선천리 바다길을 택치시며  
소중함 그 모든것을 지키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 그 품은  
피로써 사수해야 할 어머니조국의 불

불이 쏟아지고 하늘땅 뒤집혀도  
이 바다 한복판에  
나의 설이 솟아있는 한  
경사수로의 성새는 끄떡없으니

용맹을 펼치자 너의 설조서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바다속에 단숨에 처넣으리니  
조국통일상전에서 승리를 펼친 그날에  
영웅의 섬으로 너는 불리우리라  
오, 월미도- 그 이름과 나란히

### (시) 승리 상 앞 에서

리 연 회  
지심을 흐드는 피성을 들으며  
전승의 7.27 그날처럼  
만세의 환호성 터지는듯  
환희와 격정은  
늘가에 뜨거운 이슬로 번쩍이는듯

자력자강으로 쓰아올린  
우리의 《화성》을

포연에 그슬린 그 가슴으로  
자랑스럽게 안아보고싶으니  
뜨겁게 두를 부비고싶으니

우리 함께 업싸이고 만세를 부르자  
서해로, 대연으로, 부산으로...  
집중노도지던 전화의 용사들이여  
351고지, 1211고지...  
승리한 고지와 고지들에서  
만세를 부르던 전승의 그날처럼

그대들의 총성이 가리키는 곳으로  
50년대 돌격로를 따라  
우리의 《화성》이 노호하며 날은다  
피와 땀이 젖은 군화를 벗을새없이  
그대들 내딛던 원수의 이상 향해  
복수의 불꽃기가 내리쬐었다

막동강모태불을 피로 불들이며

### (시) 전승보도는 올려퍼지리라

서울해방  
대전포위작전의 대승리...  
전쟁의 불구름속을 날리던  
최고사령부의 승전보도처럼  
오늘 이 땅에 올려퍼진다  
선군조선의 대승리소식들이

한밤 자던 《화성》-12월형성공소식  
또 한밤 자고 깨던 《북극성》-2월형  
성공소식  
7월의 하늘가엔 대륙간관도르데르  
《화성》-14월형의 대성공!...

이 땅에 올려퍼는 하루하루는  
최후명말의 무덤속으로  
미제를 불어가는 한길은 한길은  
최강의 핵보검을 높이 불어  
위대한 전승상을 펼쳐가시는  
백두의 평장 김정은장군

남마다 울리는 통쾌한 승전소식  
전선에서 전선으로  
승리에서 승리로  
대양 건너 미국의 땅떨이를 뒤흔들며  
이 행성을 떨치는 장군의 발걸음소리  
선군조선의 전승사는 폭풍처럼 흐른다

쓰러진 권주의 손에서 손으로  
넘겨져야온 공화국기발  
남해기슭에 높이 휘날릴  
최후승리의 그날이 눈앞에 왔거니

오, 보병총으로 원자탄을 이긴  
위대한 년대의 용사들이여  
그대를 넘던대로  
강대한 조국은 일어섰거니  
가슴후련도록  
선군조선의 로케트 실험의 불꽃기로  
지구상에서 미국을 흔적도 없이 날려보  
내리

우리 거기에 미제와 최후결전을 하리라  
전승의 축로 퍼져오르는 그날  
무적의 화성보도를  
승리의 기념비처럼  
용문루기전시장에 높이 세우리라!

### (시) 전승보도는 올려퍼지리라

방 명 령  
전화의 그날 데우로, 부산으로  
불출기같이 날으면 남침의 화살표들  
오늘은 하와이와 괌도를 지나  
미국본토의 심장부로 번개처럼간다

원수의 배후로에게  
무자비한 정벌의 불소나기를 퍼붓던  
합정공과 삼성명의 불구름들이  
백악관과 펜타곤...  
전략사들의 머리우에 뒤덮였거니

아, 심스런 당기와 국기를 편편 날리며  
김정은장군 사열하시는  
최강의 철갑사단들과 비행대들  
그이 그어주시는 케도를 따라  
남아오른 《화성》들은  
원수의 아성에 멀적의 불벼락 불벼락  
피라

지구상에 침략과 전쟁이 머는 없는  
정의와 평화의 세계  
인민의 영원한 복제상을 펼쳐가시는  
아, 길세의 평장 김정은장군  
천만군민의 전투에 그이 계시며  
최후승리의 전승보도는  
미지않아 이 행성에 올려퍼지리라

## 자기 힘이 제 일이다

은 원동력으로  
핀다는것을 병  
사들은 심장으  
로 걸었다. ...  
안장총정병로병이 전지에  
담은것은 단지 추억만이 아니  
어느날 그 신분을 통하여  
전국의 모든 도는데 전병로병보  
양소가 일파했다는 소식이 전하  
게 되었다.  
전쟁로병은 흥분된 심정을 금  
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병시  
가 화선휴양소를 마련해주시며  
은 전선용사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리시더니 오늘날 경에 하는  
원수들에게...)  
전쟁로병의 편지를 접으며 우  
리는 생각하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화선휴양  
소가 생겨났던 때로부터 장장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 이 땅  
의 곳곳마다 생겨난 전쟁로병  
보양소!  
전쟁 이것은 전쟁로병들을  
생존도 생멸도 다 마치 당파  
행위, 조국과 인민을 걸수호한  
민족의 장한 영웅으로, 진정한  
애국자로, 금은보화에도 비길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로 내  
세워주시는 경에하는 원수들의  
승고한 행위적의미와 뜨거운  
사랑의 정화되었었다.  
평화가자 전철 주

자가 힘 이 제 일 이 다  
신 천 옷 공 장 에 서  
제가 있다.  
대중의 정신력발동, 이것이  
기적창조의 원천이라는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일군들은 사회주  
의형성정도의 불길속 새치레 지  
켜올렸다.  
평소적에서는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르는 정치사업을 참신하  
게 벌려 종업원들을 혁신장조  
로 힘있게 불어일었다.  
지배인 경영의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자체보장과 설비수리  
장비를 빈틈없이 짜고드는 한편  
전형을 창조하고 따라일기,  
따라배우기운동, 경영교환운동  
을 힘있게 벌려왔다.  
평소적에서는 혁신의 불  
길에 새치레 일어났다. 작업단  
장 지주운동은 일체를 메고  
달리면서 신임로동자들을 이끌  
어주어 작업단안에 집단주의적  
투쟁기풍이 일어났었다. 그리  
하여 작업단들은 《하나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  
고 힘찬 전투를 벌여 년간 인민  
경제계획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의 모범을 따라 모든 종  
업원들이 만민마속도상조의 불  
길높이 변일 혁신을 일으켰다.

## 우리 나라 나 립 2018년 아시아 축구 련맹 23살미만 선수권대회 본선경기 진출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2018년 아시아축구련맹 23살  
미만 선수권대회 예선 7조경기  
가 끝났다.  
이번 선수권대회 예선경기는  
모두 10개 조로 나뉘어 련맹전  
의 방법으로 진행되며 예 선  
에서 1위를 한 10개 팀과 2위를  
한 팀들 가운데서 성적이 좋은  
5개 팀, 경기대회 주최국팀을  
포함하여 모두 16개 팀이 본선  
경기에 참가하게 된다.  
7조에 속한 우리 나라 팀은

19일부터 23일까지 중국 홍콩,  
중국 대륙, 라오스팀과 경기를  
할다.  
중국 홍콩팀과의 첫 경기에서  
1:1로 비긴 우리 팀은 두번째  
경기에서 중국 대륙팀을 7:1로  
이겼다.  
라오스팀과의 마지막 경기  
가 23일 5월1일경기장에서 있  
었다.  
시작부터 팀의 전술적의도  
를 살리면서 드세 공격을 불어  
대던 우리 팀 선수들은 경기시간

5분경에 첫 득점을 한데 이어  
전반전에 모두 4골을, 후반전에  
2골을 넣음으로써 라오스팀을  
6:0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  
로 이겼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은 7조에서  
1등을 하여 본선경기에 진출하  
게 되었다.  
이번 선수권대회 예선 7조경  
기에서 2등을 한 중국 홍콩팀은  
중국 대륙팀을 4:0으로 이기고  
라오스팀과 1:1로 비겼다.  
【조선중앙통신】



## 활발히 벌어지는 해양체육활동

강원도 청년동맹위원회에서  
도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해양  
체육활동에 수영경기를 계획적으  
로 조직하였다. 특히 본보에서  
위원 창조하고 그 경험을 일반화  
하는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7. 8월해양체육활동을 맞으  
며 도안의 많은 학생소년들을  
수영을 비롯한 다채로운 해양체  
육활동에 참가하여 바다의 정복  
자로 본문의 준비해가고있다.  
원산시에서 해양체육활동

은정만을 맡아안으며 살아왔  
다는 생각으로 얼굴이 뜨거워  
났다.  
대회에 참가하고 돌아온 남  
학생의동무는 남침전 사회의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찾아  
한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하였  
다. 남침 피승원동무는 그의 생  
활을 겪어 지쳐있었다.  
학생소년들의 마음은 배두산  
영웅정년발전소건설장으로 달  
려갔다.  
당의 호소로 높이 만들고  
엄격한 지인과 싸우며 발전소  
일떠세우고있는 청년동맹대원  
들을 힘껏 응원하였다.  
그는 정침승우리를 크게 남  
고 패지를 비롯한 정침승을  
더 많이 기르는데 바쳤고나

비다와 밀려 떨어진 평  
장군과 인민군을 비롯한 산  
남군인의 학포들에서도 실  
정에 맞게 수영장을 잘 꾸  
며놓고 학생들에게 용양성  
과 인내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주었다.  
해양체육활동에 도안의 학생  
소년들은 수영뿐만아니라 수기  
인종과 배라는 말을 하나하나  
익혀 강한 체력과 굳센 의지  
수영경기를 자주 조직하고 체육  
소조도 활발히 운영하여 많은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수  
영능력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영수  
준이 변일 혁신을 일으켰다.

## 애국충정으로 새겨가는 삶의 자욱

강동군 송가로동자구에서 사는 박영희녀성  
미는 그의 심장을 새치레 울려  
주었다.  
평범한 로동자의 딸로 태어나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던 자기가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너무도 적  
다는 생각에 머리끝 들수 없었  
다. 지금껏 한 일이란 송가령에  
시집을 와서 딸 다섯을 낳아 네  
딸을 조국보위소에서 세운것  
이었다.  
몰이겨볼수록 당의 사랑과

각을 겪어 지쳐있었다.  
박영희동무의 마음은 배두산  
영웅정년발전소건설장으로 달  
려갔다.  
당의 호소로 높이 만들고  
엄격한 지인과 싸우며 발전소  
일떠세우고있는 청년동맹대원  
들을 힘껏 응원하였다.  
그는 정침승우리를 크게 남  
고 패지를 비롯한 정침승을  
더 많이 기르는데 바쳤고나

했다. 딸들리며 애써 지원물자  
를 마련해가지고 그는 발전소건  
설장에 찾아가었다.  
낮에 밤을 이어가며 치열한  
전투를 벌리는 청년동맹대원들  
의 힘찬 투쟁모습은 박영희동무  
의 감동을 자아냈다.  
(청년동맹대원들을 더 힘껏

# 조선의 자주통일을 지지한다

## 여러 나라 단체 성명 발표, 인터넷, 신문 글 게재

역사적인 7.4공통성명발표 45주에 즈음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현대위원회가 4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7.4공통성명이 집일성수주의 조국통일사상이 안이한 빛나는 결성체이라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넓은 도량과 승고한 민족애를 지니시고 조국통일운동의 현명하게 이끄신 데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성명은 남조선피괴당국이 7.4공통성명을 부정하고 미국이 추종하여 통국대결을 일삼아 온데 대해 격렬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7.4공통성명에 제시된 조선통일의 기본원칙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전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역사적인 7.4공통성명발표 45주에 즈음하여 영국국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현대위원회가 5일 인터넷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현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인들을 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같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현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인들을 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같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통일을 이룩하는것은 현대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세계 진보적인인들을 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지지와 연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한다.

다는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리념이다.

조선의 통일은 이 리념에 기초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만약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조선의 통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문제를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어 민족자주 원칙을 집행할것에 의하여 꼭꼭하고 정치외교가 열리고 조국통일 3대원칙이 내외에 엄숙히 집행되었다.

두차례의 역사적인 평양상봉을 통해 지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조국통일3대원칙의 구현이고 계승이며 실천적인 발전이다.

북남선언에 관여되어있는 기본정신, 근본력은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의 민족끼리는 나라의 통일을 그 주인인 조선인민이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 본전도 찾지 못할 미련한 망동

## 남조선당국이 의세와 풍조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행동에 광분한 박근혜당의 전횡을 그대로 밟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의세와 풍조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행동에 광분한 박근혜당의 전횡을 그대로 밟고있다. 얼마전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차관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은 서울을 행각한 유엔 《북인권》 특별보고관인행을 만나 《북의 인권상황》이 어떠니저러니 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겁고침하면서 《국제사회의 협력》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다. 이것이 모략적인 《북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존엄은 영상이며 멀쩡하고 의세와 아합하여 반공화국인행 등을 더러운 강화하려는 비열한 술책의 발효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 남조선당국자들은 집권하자마자 《북위협》이냐, 《도발》이냐 하고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더러니저러니 시비중상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의세에 추종하여 반공화국제도와 군사적도발행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그러나 적대세력의 발발적인 반공화국인행소동은 선군조선의 드세한 공격전열에 아무런 벽도 추지 못하고 대북간첩도모르며 《화성-14》형식발사기의 완전성공이 보여주다싶이 원수들의 온갖 제재와 악랄한 풍조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화국의 위력은 더욱 비강한 속도로 강화되고있다.

공중에 돌린 남조선당국자들은 불에 빠진뚱 지우며기러도 갖는 격으로 이미 거덜이 난 《북인권》 문제라는것을 또다시 꼬집어내어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힘을 불리고있는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본전도 찾을 실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인민사망의 정지가 활짝 꽃피어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의 눈부신 현실은 진보적인류의 찬탄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적대세력의 야만적인 제재와 고압인행소동에서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에게 위상과 존엄, 긍지와 자부심을 한껏 안겨주어 인민의 태만함, 행방의 요양으로 더 우 안한의 빛을 뿌리고있다.

이 엄연한 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무슨 《인권상황》이냐 꾸러 하고 아무의 비련행을 등 구어두고서도 커다란 기술인 사상은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다는것을 남조선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사실상 남조선당국자들이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나발잡는것은 제논으로 제논을 퍼뜨리는 것이다.

세계에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인권쟁이국은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극악한 파쇼독재자인 박근혜당의 통치하에서 남조선인민들의 인권이 어떻게 처참하게 유린되어왔는가 하는것은 잘 알릴수 있는 사실이다. 남조선에서 《정권》이 교체된다고는 하지만 정와 전례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보안법》의 쇠사슬에 얽매어 고통당하고있다. 얼마전 민주투쟁을 비롯한 노동운동단체들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법도 당파적이 없다고 하면서 생존권투쟁을 위한 총파업투쟁에 열쳐나섰것은 남조선에서 근로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가 어찌나 오슬이나 여전한 다는것을 말해 주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실지로 인권에 관심이 있다면 제 정권이 신더미처럼 쌓인 문제들부터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제고는 씻음남도 않고 도리어 남을 힐문하며 주재국에 목을 매고도 돌아치는 남조선당국자들의 꼴을야말로 하나의 정치난화 아니겠는가.

지금 남조선에는 박근혜당에 의해 해외에서 집단적으로 유인합치되어 끌려간 우리 녀성공민들이 있다. 남조선당국이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며 대한 우리의 요구에 귀를 들어주고 계속 강제로 억류하고있는것은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이다. 남조선 작게도 북의 녀성공민들을 대한 집단유인합치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즉시 송환하는것이 현 《정부》가 취해야 할 첫번째 인권개선조치라고 주장하고있다. 현실이 어떠한지 제논을 지껄리는 남조선당국자들에게 대 해서는 모로써를 하면서 변신처럼 누구에게 《인권상황》이냐 쉼니 하며 상대질한다.

남조선당국은 불순하리 짝이 없는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당당 결어치우고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는 우리 녀성공민들부터 지체없이 돌려보내야 한다.

남조선당국이 이 요구를 무시하고 박근혜당처럼 계속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에 매달린다면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파국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것이다.

은 정 철

# 재 중 동 포 단 체 들

## 전 교 조에 대한 당국의 파쇼적폭거 규탄

하기 위해 활동하여온 전교조의 비법하는 《유신》 파쇼독재를 부활시키려고 발악하는 박근혜당이 강행한 극악한 반민족적, 반민주적행위라고 단호하게 비판하였다.

당국들은 전교조의 활동을 눈 에 든 가시처럼 여긴 피괴보수배당이 이 단체를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해왔다고 단언하였다. 특히 집권권리 전교조에 대

# 민 주 교 육 권 리 용 호 를 위 한 투 쟁

##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단언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고발한다. 평화나 인권이나 하는 허울좋은 말밖에 들어있는 일본정부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폭로한다.》고 비난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 패전의 교훈을 망각한자들의 무분별한 도발광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민 주 교 육 권 리 용 호 를 위 한 투 쟁

##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단언하였다.

그들은 《우리의 고발한다. 평화나 인권이나 하는 허울좋은 말밖에 들어있는 일본정부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폭로한다.》고 비난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제일조선학생들의 앞날을 위해 더욱 단결하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자고 그들은 호소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람심수석방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의 감옥들에 피명망, 막대한 집권시기에 유육된 수많은 람심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문제를 의면한채 적체정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람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람심수석방은 초법률 명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하였다.

제도도 된 정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람심수석방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8일 람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람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람심수석방이 없다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람심수들은 비명망, 막대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했다는것이며 람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가 무바서우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단언하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람심수들이 있는 감옥 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일보》가 모든 악역의 정선과 람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명망, 막대한 집 권시기 많은 람심수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자주통 일과 민생, 민주를 요구하면 《통국》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고 개탄하였다.

민중은 새 《정부》에서 람심수들이 석방될것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람심수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시기와 달라졌지 않다고 사설은 단언 하였다.

사설은 환수 복지향 이 대변 인심령을 통해 현 《정부》가 초법률행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하여 전하였다.

최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법률행위로 감옥문을 열어 람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피명 명을 부리는 박근혜정파당 을 엄벌에 처하고 악역들을 철저히 청산하여 모든 람심수들 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람심수석방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의 감옥들에 피명망, 막대한 집권시기에 유육된 수많은 람심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문제를 의면한채 적체정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람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람심수석방은 초법률 명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하였다.

제도도 된 정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람심수석방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8일 람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람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람심수석방이 없다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람심수들은 비명망, 막대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했다는것이며 람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가 무바서우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단언하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람심수들이 있는 감옥 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일보》가 모든 악역의 정선과 람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명망, 막대한 집 권시기 많은 람심수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자주통 일과 민생, 민주를 요구하면 《통국》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고 개탄하였다.

민중은 새 《정부》에서 람심수들이 석방될것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람심수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시기와 달라졌지 않다고 사설은 단언 하였다.

사설은 환수 복지향 이 대변 인심령을 통해 현 《정부》가 초법률행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하여 전하였다.

최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법률행위로 감옥문을 열어 람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피명 명을 부리는 박근혜정파당 을 엄벌에 처하고 악역들을 철저히 청산하여 모든 람심수들 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람심수석방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의 감옥들에 피명망, 막대한 집권시기에 유육된 수많은 람심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문제를 의면한채 적체정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람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람심수석방은 초법률 명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하였다.

제도도 된 정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람심수석방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8일 람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람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람심수석방이 없다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람심수들은 비명망, 막대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했다는것이며 람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가 무바서우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단언하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람심수들이 있는 감옥 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일보》가 모든 악역의 정선과 람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명망, 막대한 집 권시기 많은 람심수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자주통 일과 민생, 민주를 요구하면 《통국》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고 개탄하였다.

민중은 새 《정부》에서 람심수들이 석방될것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람심수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시기와 달라졌지 않다고 사설은 단언 하였다.

사설은 환수 복지향 이 대변 인심령을 통해 현 《정부》가 초법률행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하여 전하였다.

최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법률행위로 감옥문을 열어 람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피명 명을 부리는 박근혜정파당 을 엄벌에 처하고 악역들을 철저히 청산하여 모든 람심수들 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람심수석방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의 감옥들에 피명망, 막대한 집권시기에 유육된 수많은 람심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문제를 의면한채 적체정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람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람심수석방은 초법률 명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하였다.

제도도 된 정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람심수석방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8일 람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람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람심수석방이 없다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람심수들은 비명망, 막대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했다는것이며 람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가 무바서우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단언하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람심수들이 있는 감옥 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일보》가 모든 악역의 정선과 람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명망, 막대한 집 권시기 많은 람심수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자주통 일과 민생, 민주를 요구하면 《통국》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고 개탄하였다.

민중은 새 《정부》에서 람심수들이 석방될것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람심수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시기와 달라졌지 않다고 사설은 단언 하였다.

사설은 환수 복지향 이 대변 인심령을 통해 현 《정부》가 초법률행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하여 전하였다.

최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법률행위로 감옥문을 열어 람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피명 명을 부리는 박근혜정파당 을 엄벌에 처하고 악역들을 철저히 청산하여 모든 람심수들 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람심수석방 문제해결을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지금 남조선의 감옥들에 피명망, 막대한 집권시기에 유육된 수많은 람심수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문제를 의면한채 적체정신이라는 말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며 람심수들을 감옥에 두고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에 대해 말할수 없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람심수석방은 초법률 명에 의해 집권한 현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의지를 가지고있는지를 가르는 첫 시험대라고 주장하였다.

제도도 된 정치는 잘못된 과거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함께 당국으로부터 피해받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정부》가 더 늦기 전에 람심수석방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남 조선 인 터 네 트 신 문 들

## 람 심 수 석 방 에 나 설 것 을 요 구

남조선인터넷신문 《통일 뉴스》에 의하면 18일 람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람심수들을 석방하지 않으려는 남조선당국을 규탄하였다.

단체는 람심수석방이 없다는 인권회복도 없다고 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는 람심수들은 비명망, 막대한 《정권》 9년간 남조선의 인권이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준다고 지적하였다.

람심수석방을 포기하는것은 인권을 포기했다는것이며 람심수석방을 반대하는것은 정의가 무바서우지 않겠다는것이라고 단언하는 비난하였다.

단체는 람심수들이 있는 감옥 문을 국민들의 손으로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고 남조선인터넷신문 《민중일보》가 모든 악역의 정선과 람심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피명망, 막대한 집 권시기 많은 람심수들이 생겨났다고 하면서 그 시기에 자주통 일과 민생, 민주를 요구하면 《통국》으로 몰려 감옥에 갇혔다고 개탄하였다.

민중은 새 《정부》에서 람심수들이 석방될것을 기대하였지만 새로운 람심수가 생겨났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권》시기와 달라졌지 않다고 사설은 단언 하였다.

사설은 환수 복지향 이 대변 인심령을 통해 현 《정부》가 초법률행위로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람심수석방과 민주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대하여 전하였다.

최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초법률행위로 감옥문을 열어 람심수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고 사설은 지적하였다.

사설은 당국이 감옥에서 피명 명을 부리는 박근혜정파당 을 엄벌에 처하고 악역들을 철저히 청산하여 모든 람심수들 을 석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 미 제 의 교 훈 을 망 각 한 자 들 의 무 분 별 한 도 발 광 기

## 미제가 조선전쟁을 도발하였 다가 우리 인민들이 무릎을 꿇은 때로부터 64년이 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미제와 피괴조권들은 역사적 교훈을 망각하고 어떻게 하나 진조선반도를 미국과 함께 야만적으로 60여년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행동에 피를 불고 날렸다.

미제는 《조선전쟁에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회맹회 수락할때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였다.

전쟁과 《사드》 장비들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반입하였는가 하면 미제침략군의 대표적 인 공적형성사업으로 불리우는 핵잠수함 《사일렌》호를 부산항에 끌어들이고 우리의 주요대 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공중제재사상이었던 《세움》을 근심미공군기지에 전격배치하였다.

《니미즈》호 핵항공모함파견단을 서해평화해역에 투입하여 이미 전개되어있는 《로널드 레건》호 핵항공모함파견단과 함께 조선반도유사시에 대비한 해상작전을 강화할것을 미제와

# 인류력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중의 위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안드레오프-베르부르그시에서는 엄숙토론회와 도서, 사진전시회가, 연해변항 아르메니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 및 수품에 출품한 개막식이 6일부터 14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다.

도서, 사진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 김정은동지의 사진본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행사장에는 백두산선출원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들과 선군조선의 자랑한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습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있다.

행사장에는 로씨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김일성동지는 외세의 침략과 간첩을 물리치고 조선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기에 인류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김일성동지는 외세의 침략과 간첩을 물리치고 조선의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키기에 인류역사에 영원히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인중의 위인이시라고 격찬하였다.

김정일동지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를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만년토대를 마련해놓으신 탁월한 영도자이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최후승리를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구지휘하고 계신다.

그이의 영도함에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기의 성공을 비롯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현이 창조하고있는 조선은 미국도 감히 견딜수 없는 강국으로 위용되고있다.

연해변항 아르메니아에서 부시장은 김일성동지는 쌓아올린 시대의 업적으로 하여 전보적인인물로부터 최세의 정치가로 열렬한 존경을 받으시는 위인이시다. 그이께서 마련해놓으신 로조선의 전통은 오늘날도 계승되고있다 말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방글라데시, 이란, 프랑스, 로모니아, 멕시코, 탄자니아, 기네, 잠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에서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의 기간에 강연회, 파당회, 독보회가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방글라데시연공정원연구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연하였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를 지대로는 어버이로 칭송하고있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파스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시험발사가 장만 단계에서 조선에 가해오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조선은 미국이 정경당황한다면 그 심장을 타격하여 일기에 퍼질것과 비탄의 외곡을 풍족히 보여 주었다고 대변인이 덧붙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최상의 정치

에 이른 조선의 전략적지위를 바로 보고 인식하도록 대신 반공화국제압책동에 매여달려가는 제논으로 제 무덤을 파는 행위이라고 주장하였다.

리아 노보스토프통신, 《이즈베스티야》를 비롯한 로씨야언론들과 이란의 크세스TV방송, 필리핀 신문 《인디안》, 이탈리아의 안사통신, 스위스신문 《스위스인포》, 일본의 《마이니저통신》, NIK방송, 중국 홍콩의 《대공보》, 《명보》, 봉황위성TV방송도 《도사시(제국)의》가 나온다면 경의 행동으로 대담할것이다》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대담을 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시험발사가 장만 단계에서 조선에 가해오는 미국의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의 나아가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기 위한 당당한 자위권의 행사이라고 강조하였다.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으로 조선은 미국이 정경당황한다면 그 심장을 타격하여 일기에 퍼질것과 비탄의 외곡을 풍족히 보여 주었다고 대변인이 덧붙였다.

대변인은 미국이 최상의 정치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런외무성 대변인이 최근 자기 나라 정부를 격고들 미국 방장관의 말만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이 지난 수십년동안 이반정부와 인민사이에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 세계적은 정책을 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미 행정부와 미국 방장관이야말로 배후와 인연 유린의 상징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 대답을

우리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완전성공을 《세계적인 위업》으로 격고들면서 미국이 또다시 대조선(제국)의 적을 조작해대려고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한 대답을 14일과 15일 여러 차례에서 보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대륙간판도 로데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성공에 당황장조한 미국이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전대미문의 《초강도제국적》을 조

작해내려고 광분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대변인은 핵강국, 대륙간판도 로데트보유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무한한 제재압박소동을 용납하리라고 생각하는것은 극히 위험천만한 오산이 아닐수 없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사회에서 또다시 《제재결의》가 나온다면 조선은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대변인은 경고하였다.

베네수엘라의 텔레우르TV방송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